

상습절도행위에 대한 몇 가지 범죄심리학적 고찰

- 조〇〇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 규 화*

◇ 목 차 ◇

-
- I. 서 론
 - II. 조〇〇의 경우에 대비시켜 본 주요 범죄학이론들
 - III. 학습이론을 통해 살펴본 조〇〇의 범죄행위
 - IV. 학습이론에 의한 한계와 그 보완
 - V. 대응책의 제시
 - VI. 맺는말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연구의 목적

‘大盜 조〇〇, 일본에서 절도행각 재개’라는 보도¹⁾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인

* 동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한결같은 반응은 ‘씨스테라’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록 상습절도와 탈옥 등의 죄목으로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그의 수많은 절도행위는 소위 일반 ‘잡범’과는 달리 고관대작과 부유층을 상대로 벌인 ‘義賊활동’으로 알려진 부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약 2년 전인 1998년 11월에 출소한 이후 지금까지 독실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宣敎, 범죄예방을 위한 講演, 출소자의 再活사업, 노숙자 敎化활동 등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참회한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옥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만나 혼인한 부인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고, 그 자신도 한 범죄예방회사의 자문 역으로 받는 봉급에다 강연이나 신앙간증 등 활동으로 받는 보수를 합하여 한 달에 약 천만 원 정도의 개인적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의 새로운 절도행위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훨씬 젊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인과의 혼인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끔찍히 여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감안한다면 그의 이러한 파행은 더욱 충격적이다.

혹자들의 추측대로 그의 새로운 범행이 과연 義賊활동의 재개인지, 아니면 단순히 끊기 힘든 盜癖의 재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간에 그러한 직접적인 범죄 동기와 이유를 밝혀 내는 것만으로는 그의 경우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그의 범행이 소위 義賊활동이었다면 왜 그가 그러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는지, 常習盜癖의 산물이라면 왜 그가 그러한 상습적인 도벽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위의 ‘의적활동’이나 ‘상습도벽’과 같은 설명은 윤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는 몰라도 범죄학적(즉 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식적인 차원의 범죄이해에 불과하다.

물론 습벽은 그의 범죄행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본적 요소가 됨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좀 더 숙고해 보면 그러한 설명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동의반복에 지나지 아니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도벽은 어쩔 수 없이 그로 하여금 절도행위를 계속 하도록 했다」라는 命題는 도벽이라는 개념으로 그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의 도벽이라는 것도 「그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절도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는

1) 「도둑질에서 손을 씻고 개과천선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이 1998년 11월 보호감호로부터 석방된 지 만 2년 만인 2000년 11월 ○○일 일본 도쿄의 한 고급주택가에서 가택침입절도행각을 벌이다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2001년 1월 5일 전후의 한국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도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명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결국 兩者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조○○의 경우는 범죄학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과제로 주어져 있다. 범죄학자들의 설명, 즉 범죄학적 설명이란 바로 범죄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말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든 과학적 연구의 목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상세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자연적·인간적)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지식을 얻거나 넓히는데 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는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이 그 내용과 타당범위에 있어서 명확하고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경험적으로 타당하고 또 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점에서 科學的 知識(*connaissance scientifique, scientific knowledge*)은 일반인들이 가진 通常的인 知識(*connaissance ordinaire, common knowledge*)이나 現場實務家들의 現場知識(*connaissance professionnelle, professional knowledge*)과는 엄격히 구분된다.³⁾

예컨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느낌은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것이 끝없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닷가 5층 아파트에서 멀리 수평선 위에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돛단배를 가만히 바라보라. 당신이 주의 깊은 관찰자로서 조금이라도 과학적 지식을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 지구가 둥글구나’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구가 둥글지 않고 수평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자. 수평선은 현재 그대가 위치한 5층 아파트와 같은 높이에 솟아 올라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보다 높이가 낮은 돛단배가 수평선 위에 하늘을 배경으로 나타나 보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느낌이나 상식 또는 실무적 지식과 그 과학적 실체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간격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조○○의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서론에서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분명히 함에 이어, 제 2장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범죄학이론들을 그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개괄적으로 살펴 볼 필요를 느꼈다(Ⅱ. 조○○의 경우에 대비시켜

2) Cf. 범죄학이론, Ronald L. Akers 著.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 譯, pp.25~32.

3) Raymond GASSIN, *Criminologie*, Dalloz 제4판, 1998, p.64.

본 주요 범죄학이론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상습적 범죄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의 행위를 좀 더 이론적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Ⅲ. 학습이론을 통해서 본 조○○의 범죄행위). 그러나 범죄현상이 가지는 복합적 원인 때문에 어떠한 범죄학이론도 그 하나만으로 이를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선택한 이론적 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적시하고 이를 몇몇 다른 이론들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Ⅳ. 학습이론의 한계와 그 보완). 그러나, 무엇보다, 범죄현상에 대한 이론적·과학적 이해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적 측면, 즉 범죄정책적 고려를 도외시키고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조○○의 경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또는 심리학적 대응방법을 제시한 뒤(Ⅴ. 대응책의 제시),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마무리짓고자 한다(Ⅵ. 맺는 말).

Ⅱ. 조○○의 경우에 대비시켜 본 주요 범죄학이론들

범죄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증학파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범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와 설명은 있어 줄곧 왔으나, 그러한 것들은 대개 미신적·신화적·종교적이거나 윤리적·규범적·철학적 성격의 것이었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셈이 되는 범죄학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실증적·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를 축적하였으나, 아직 그러한 연구들이 범죄를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로는 우선 범죄현상은 인간적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자연과학에서와 달리 서로 보완적이거나 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서로 상충·모순되는 경우가 많아 통일된 결론을 내어놓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범죄는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각 설명이 지니는 부분적 성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데서 이들이 가지는 한계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는 조○○의 경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찾는 준비로서, 우선 본 장에서, 이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된 범죄학이론들 중 주요한 것들을 크게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⁴⁾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

4) 단순히 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한 범죄이론들(예컨대, 사회주의적 범죄이론이나 범죄환경론 등)은 범죄현상의 거시적 혹은 추상적 설명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본고와 같은 개별범죄의 구체

보고자 한다.

1.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과 盜癖

범죄학의 탄생은 범죄의 원인에 관한 생물학적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모든 개인에게 선악을 변별하여 그에 따른 合目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단지 도덕적·법적 평가를 하는 式的 규범적 입장에서부터 벗어나, 범죄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正常人과는 구분되는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규범적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이러한 타고난 因子에 작용할 수 있는 物理的 대응만이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式的 결정론적·실증적 사고는 바로 범죄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⁵⁾ 그리하여 비록 롬브로조 式的 ‘타고난 범죄인 born criminal’이란 관념이 설득력을 잃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각 개인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⁶⁾을 어떤 식으로든 범죄와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1) 주요 범죄생물학적 관점

우선 범죄인은 그 생김새에 있어서 어딘가 정상인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어떤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롬브로조 이래 전통적으로 범죄생물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바는 한 개인이 외부로 나타내 보이는 신체적 특징과 범죄와의 상관성이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된 것은 신장, 체중과 같은 체격 조건에서의 非正常뿐만 아니라,⁷⁾ 두개골, 안면, 귀, 눈, 코, 입, 몸통, 팔다리, 생식기, 피부, 머리카락, 체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로부터

적인 이해에는 적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논외로 한다.

- 5) 범죄현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의 출발로 삼는 롬브로조(Lombroso 1835~1909)의 「범죄인」은 1876년에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범죄인은 범죄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生來的 犯罪人說을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타고난 범죄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특히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隔世遺傳된 原始人의 동물적·해부학적 특징이었다.
- 6)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으로 범죄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외부적 생김새, 체형·체질, 유전인자, 본능, 내분비·성별 등 생리적 특징, 뇌의 구조, 혈액형,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이다.
- 7) 예컨대, 영국의 의사이며 범죄학자였던 고링(Goring)과 같은 이는 범죄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신장이나 체격에서 열등하다고 보았다.

우리가 현재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비록 외부로 나타나는 신체적 비정상 중 어떤 것들은 뇌의 異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러한 뇌의 이상은 개인의 지적·감성적·도덕적 능력의 減少를 가져와 결국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외모 그 자체와 범죄적 소질을 일반적으로 연결지우려는 시도는 과학적 근거를 결여한다는 것이다.⁸⁾

외부적 생김새의 비정상이라는 기준과는 다소 달리 사람의 신체적 유형(체형)과 범죄와의 상관성을 밝혀 내려는 試圖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인 크레츠머(Kretschmer)가 제시한 細長型, 筋肉型, 둥근型이라는 기준이다. 그에 의하면 세장형은 범죄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주로 절도, 위조, 사기, 배임과 횡령 등의 범죄를, 근육형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는 유형으로 주로 폭력범죄를, 둥근형은 범죄인 중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주로 뒤늦게 나이가 들어 피를 사용하는 범죄를 범하기 쉬운 유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지 범죄자의 신체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범죄자가 범하기 쉬운 범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밝혔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범죄의 원인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후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⁹⁾와 서로 내용에 있어서 상충됨으로써 많은 부분 그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외부에 드러난 신체적 비정상이나 신체유형이 아닌, 범죄인이 가진 생리적인 특징으로부터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試圖도 만만치 아니하다. 예컨대, 남성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과다수치와 남성의 성범죄 혹은 폭력범죄를 연결시킨다든가,¹⁰⁾ 정상인 집단에서보다 범죄인의 집단에서 왼손잡이가 더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범죄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든가,¹¹⁾ 감상선기능항진이 절도범이나 걱정범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든가,¹²⁾ 여성의 임신이나 월경장

8) 예컨대, 롬프로조는 강간범의 특징으로 길게 늘어진 귀, 납작한 두개골,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눈, 좁은 양 미간, 굵고 옆으로 퍼진 코, 지나치게 긴 턱 등을 擧示하였으나 후에 이어진 경험적 연구들은 이를 확인해 주지 못했다.

9) 예컨대, Sheldon(Les variétés de la constitution physique de l'homme)이나 Glueck부부(Physique and delinquency)의 연구에서는 근육형이 전체 범죄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A. Booth & D.W. Osgood,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deviance in adulthood : assess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Criminology, 1993.

11) 1988년,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Shaanxi 의과대학이 756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더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12) N. Pende, 《La biotypologie et la clinique de la personne humaine au service de la criminologie》.

에 또는 폐경을 여성범죄와 연결시키는¹³⁾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 이외에도 영양상태, 혈당, 혈액형, 성별, 연령 등 생리적 특성을 범죄와 연관지우려는 試圖가 많이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그것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생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정상인의 집단에서보다 범죄인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인이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범죄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또 다른 측면은 유전적인 요인이다. 롬브로조는 類人猿이 가진 동물적 본능이 격세유전을 통해 범죄인들에게 전해졌다고 주장했지만, 오늘날에는 범죄적 소질 그 자체가 유전되어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다만 성격이나 일정한 신체적 성향이 유전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범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경험적 연구에 몰두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범죄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어떠한 성격이나 신체적 속성이 친범죄적이며 또 유전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속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범죄적인 성향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되는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前者의 예로는 남성을 결정하는 XY염색체에 X나 Y가 하나 또는 그 이상 더 붙여져 있는 異常염색체(XYY, XXY, XYYY, XXXY... 등)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 하는 연구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家系 연구, 쌍생아 연구, 입양아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연구도 6, 70년대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방법론과 경험적 타당성 그리고 실제적 유용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오늘날에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밖으로 밀려난 듯하다.

아마 범죄생물학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는 뇌와 신경기능의 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뇌의 작용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된다. 따라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의 이상이 범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이라 하더라도 뇌의 조직이나 기능에서의 이상은 직접적이고 더욱 심각하게 범죄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뇌신경학자(neurocerebralist)나 신경생리학자(neurophysiologist) 혹은 신경심리학자(neuropsychologist)들의 믿음이었다.

Actes du 11ème Congrès Internationale de Criminologie, Paris 1950, t.II, pp.195~203.

13)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PMS)이라는 것으로 여성들이 월경주기가 가까워 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범죄적 충동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영국의 법원들은 1981년 이래 PMS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뇌X선검사, 뇌파검사, 신경외과 등의 도움을 받아 중양과 같은 뇌의 질환에서부터 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 그리고 다양한 뇌신경전달물질의 장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살인이나 자살, 폭력범죄자들의 경우 뇌의 이상이나 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정상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뇌의 이상이나 기능장애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통상적인 경우, 특히 상습절도나 지능범죄와 같은 경우에 뇌의 작용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관하여 학자들은, '뇌는 외부세계와 인간의 행위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기능은 결코 전달된 물질적·화학적 자극의 단순한 기계적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방법으로 외부세계를 해석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범죄는 바로 그러한 해석과 적응노력이 만들어내는 산물의 하나이다'¹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생물학적 결정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2) 조○○의 경우

우리는 조○○이 정상인보다 지적, 감성적, 도덕적인 면에서 보통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의 범죄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유전적·뇌신경학적 결함이 있다고 듣지도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그가 175cm의 신장에 다소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라는 정도의 외형적 지식뿐이다.

그러나 실상 위와 같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자료들은 설사 그것이 있다고 해도 조○○의 경우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관점들은 그 과학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적용코자 할 때에는 결코 과학적이지 아니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¹⁵⁾를 제외하고는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탐구는 그 방법론적 결함으로 인하여 경험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생물학적 범죄이론들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이론으로서 추상적·통계적인 설명밖에 가져다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4) Raymond GASSIN, 전계서, p.390.

15) 예컨대, PMS, 갑상선기능 항진이 도벽을 불러 일으킨다는 따위.

2. 도벽과 그 심리학적 이해

범죄현상을 범죄인의 심리적 계기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입장은 범죄학상 중요한 한 관점을 이루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생물학의 연구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범죄이해를 가져다주지 못하자, 이제 범죄심리학이 범죄사회학과 더불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범죄심리학적 관점들을 망라하는 대신에, 本稿의 목적에 맞추어 몇몇 주요한 범죄심리학이론들을 조○○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그의 절도적 습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찾는 준비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1) 주요 범죄심리학 이론

범죄심리학은 그 관심방향이 범죄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원인으로서의 특별한 내적 상태 또는 내적 성향의 연구에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범죄행위에로의 이행과정의 설명에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원인학으로서의 범죄심리학과 과정학으로서의 범죄심리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는 前者를 순수한 범죄심리학이론으로, 後者를 범죄사회심리학이론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범죄의 설명을 범죄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서 찾으려는 생각은 Freud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Freud에 의하면 범죄는 반사회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런 반사회적 성격은 性的 발달과정에서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후, 범죄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¹⁶⁾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범죄성격(인격)이론(criminal personality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Pinatel¹⁷⁾에 의하면 범죄인과 비범죄인 사이에는 비록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personality의 차이가 있다. 자기중심적 성격(egocentricity), 흐리멍덩한 성격(lability), 공격적 성격(aggressivity), 정서적 무관심(emotional indifference) 등 네 가지 요소는 바로 범죄인들이 보여주는 성격적 특징이며, Pinatel은 이를 범죄성격의 核¹⁸⁾이라고 불렀다. 개인의 성격과 범죄의 관련성에 관

16) 예컨대, Freud와 달리 Adler는 열등감으로부터 반사회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Lagache는 자기중심적 성격과 정서적 미성숙을, 1930년대 Yale대학의 John Dollard와 그의 동료들은 좌절감을 반사회적 성격의 원인으로 보았다.

17) 이 이론을 담고 있는 그의 주된 저서로는 La criminologie, 1975, Dalloz.

18) 이는 불어의 Le noyau central de la personnalité criminelle을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는 The hardcore of the criminal personality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연구는 미국에서도 많이 행하여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0년대 Havard대학의 Glueck부부¹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범죄인의 성격은 독선적(self-assertiveness), 도전적(defiance), 외향적(extroversion), 이중성(ambivalence), 자기중심성(narcissism)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후 미국에서는 범죄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 예컨대 MMPI, CPI, MPQ같은 다양한 성격테스트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²⁰⁾

범죄인의 심리적 특징을 범죄행위와 연관지우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능과 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이다.²¹⁾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능의 일반적 수준과 범죄와의 사이에 상관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몇몇 특별한 범죄(예컨대, 절도, 폭행, 상해, 풍속범 등)의 범행자들이 보여주는 판단력과 이해력의 수준이 평균인들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원인으로서의 범죄인의 특별한 심리적 특징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와는 별도로 범죄인이 범행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점이 주어져 있는 이론들도 무수히 많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이론들을 크게 孟子的 관점(혹은 Rousseau적 관점)의 이론들과 荀子的 관점(혹은 Hobbes적 관점)의 이론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른바 孟자의 관점의 이론들이란, 왜 자연상태에서 좋하게 태어난 개인들 중 일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인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의문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범죄학 이론들을 말한다.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에서 찾는 대부분의 범죄이론들²²⁾과 환경과 심리적 계기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들²³⁾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에 荀자의 관점이란, 자연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

19) Sh. Glueck and E. Glueck,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50.

20) 이에 관해서는, 염장호·최영인·염건령·최석진 共著, *범죄학 I*, 열린, pp.234~242.

21) 이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많은데, 오래된 것으로는 Henry Goddard의 *Efficiency and Levels of Intellige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20) : De Greeff의 *Le niveau intellectuel et la criminalité* in *Journal de neurologie et de psychiatrie*, 1933, No.1 pp.114~123 등을 들 수 있고, 보다 최근의 것으로는 Travis Hirschi and Michael Hindelang의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 A Revisionist Review*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7, pp.471~586 : Terrie Moffitt and others의 *Socioeconomic status, IQ and Delinquency* i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1981, pp.152~156을 들 수 있다.

22) 사회적·환경적 요인(socio-ecological factors)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대표적인 범죄학자들로서는 Ferri, Lacassagne, Durkheim, Shaw 등을 들 수 있다.

23) 예컨대, 사회주의(socialist) 범죄이론, 사회적 반작용적 범죄이론(social reaction theory),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범죄피해자이론(victimology) 등.

고 태어난 개인들이 왜 대부분 사회속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는 범죄이론들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있는 이론으로는 Travis Hirschi의 사회적 유대이론(social bound theory),²⁴⁾ Walter C. Reckless의 억제이론(containment theory),²⁵⁾ Howard S. Becker의 경제학적 접근(economic approach of crime),²⁶⁾ M. Cusson의 戰略이론(théorie stratégique)²⁷⁾ 등을 들 수 있다.

2) 조○○의 경우

우리는 생물학적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의 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性的 갈등을 겪었는지, 아니면 Adler 式으로 해석하여 그가 배우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니면 좌절감이 그의 범죄행위와 어떻게 관련지워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요인들이 그의 범죄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직접적 관련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에 입각한 설명들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 구체적·직접적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이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보다 오히려 정신분석학적 혹은 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치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범죄인격이론이나 지능이론을 조○○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더욱 적당하지 아니한 것 같다. 우리가 아는 한 조○○은 평균인보다 더 자기중심적이지도, 흐리멍덩하지도, 공격적이지도, 정서적으로 무관심하지도, 저능하지도 아니하다. Glueck 부부의 기준에 따라 그를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범죄행위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이중적 성격은 범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인에 의한 범죄이해의 일면적·추상적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로서의 이행과정을 설명코자 하는 대부분의 이론들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일면적·추상적이거나 내용이 공허한 경우가 많다. 비록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

24)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1969.

25) A non-causal explanation : containment theory, Exerpta criminologica, 1962, pp.131~134.

26)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in Jorunal of political economy, 1968, 3-4월호, pp.169~217.

27) Maurice Cusson, Délinquants pourquoi, éd. Colin, 1981.

리가 범죄현상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러한 지식들은 지금 내 앞에 구체적으로 서 있는 범죄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물학적·심리학적 원인이나 과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한 사람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Ⅲ. 학습이론을 통해서 본 조○○의 범죄행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이론들은 그 관심의 방향이 범죄행위 원인의 규명에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범죄행위예로의 이행과정의 설명에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범죄원인론과 범죄과정론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대개 생물학적·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들은 前者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들은 後者に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인론은 그 설명의 방향이 추상적 혹은 거시적으로 흐르든가, 아니면 개별범죄행위의 복합적 원인을 모두 감안한 구체적인 범죄이해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정론은 범죄학의 가장 원초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원인의 규명을 소홀히 하는 미흡함이 있다.

예컨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현재 처해 있는 사람 또는 생물학적·심리학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다소 높다고 하여 이를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몰라도 구체적 사안의 설명으로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러한 환경 즉 다양한 생물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 원인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범죄를 범하기에까지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한편, 순수한 범죄과정론²⁸⁾은 그 객관적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고려를 배제함으로써 내용의 공허함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범죄학자들은 위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범죄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행동심리학(Behaviorism)에 터 잡은 學習理論이다. 즉 학습이론은 ‘범죄행위는 학습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습’이라는 개념안에 원인으로서의 의미와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학습이론을 절도의 습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범죄이론으로 보아, 우선 본 章에서 이 이

28) 예컨대, Gary S. Becker의 경제학적 설명(economic approach of crime)이나 Walter C. Reckless의 억제이론(containment theory).

론을 통해 조○○의 경우를 살펴 보고, 다음 章에서는 이 이론에 의한 설명이 가지는
 限界를 몇몇 다른 이론들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1. 다양한 학습이론적 관점

범죄적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진다고 보는 생각은 19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범죄사회학자인 Gabriel Tarde(1843~1904)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의 생각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란 바로 개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모방이라는 사회의 원초적 사실이다. 각 개인은 주변환경의 지배를 받
 기 마련이며, 죽이거나 흠치는 것을 보고자란 사람은 그것을 따르게 마련이다’ 는 것으
 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그는 특히 직업적인 범죄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²⁹⁾

아마 학습이론의 관점을 범죄행위의 설명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 범죄학
 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Sutherland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도 역시 개인의 범죄적 행동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어지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차별적인 사회조직(differential social organisation)과 이와외의 차별적인 접촉
 (differential associ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³⁰⁾ 즉 그에 의하면, ‘범죄적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부터 습득된다. 그런데 한 사회에는 법을 지키는
 데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과 이에 비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 사이에
 일종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만약 어떤 개인이 후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주
 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범법적 행동을 습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Sutherland에 이어 학습이론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킨 사람은 바로 Ronald L. Akers
 이다.

Sutherland처럼 Akers도 일탈행동은 학습되어진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
 지만 Akers가 설명하는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
 여 준다. 우선 그의 이론은 사회적 행동의 습득에 관한 일반이론인 행동주의 심리학자
 (behaviorist)들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³¹⁾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

29) Tarde의 주요 저서로는 La criminalité comparée, 1886 ; Les lois de l'imitation, 1890 ; La philosophie pénale, 1890 등이 있다.

30) 그의 주된 저서인 Principles of Criminology는 1992년에 제11판이 Sutherland, Cressey, Luckenbill 3인 共著로 출간되었다.

31) 대표적으로 Albert Bandura의 Social Learning Theory.

론에 의하면 사회적 행동의 학습은 주어진 행위에 대한 보상(rewards)과 처벌(punishments)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도구적 조건화(instrumental conditioning)라고 부른다. 결국, 그에 의하면, 범죄적 행동도 이러한 조건화된 학습과정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학습되는데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규범일탈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과의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2) 타행동(그것이 규범순응적인가 규범일탈적인가는 묻지 않는다)과 대비되는 일정한 규범일탈행위에 대한 호의적 定義(favorable definitions toward deviant conduct) 3) 이와 같이 호의적으로 정의된 일탈행동의 수행(carrying out of deviant conduct) 4) 수행된 일탈행위에 대한 보상(rewards) (5) 보상된 행위의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³²⁾

Akers가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심화하고 체계화시켰다면, Robert Clark는 이를 일반화시킨 학자라고 볼 수 있다.³³⁾ Clark는 차별적 접촉이라는 개념 대신에 參照 그룹(reference grou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한 집단³⁴⁾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Clark에 의하면 범죄적 행동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그들이 실제 하든 가상적이든 간에)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저질러진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Clark의 參照그룹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범죄행위자는 그 행동의 기준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와 거리가 먼 사람들부터도 찾을 수 있다. 둘째, Sutherland의 이론이 범죄행위의 학습에 있어서 행위주체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보았다면, Clark의 이론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였다.³⁵⁾

32) Akers의 학습이론에 대해서는 그의 주된 저작인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ing Approach*.(1985, 3rd ed. Belmont)를 참조하기 바람.

33) Robert E. Clark, *Reference group theory and delinquency*, New York, 1972.

34) 예컨대,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살인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행위의 준거를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들에게서 찾는 것 따위.

35) Clark의 이론과 유사한 것으로는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이 있다. Cf. Daniel Glaser, "Criminality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2. 조○○의 경우

1944년생³⁶⁾인 조○○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어머니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헤어져 잠시 외가에서 자라다 학대를 못이겨 7살의 나이에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므로, 가출할 당시인 1950년대 초반(그를 1944년생이라고 볼 때) 혹은 해방직후(그의 나이를 현재 63세로 가정할 때)의 제반 상황으로 미루어 그의 생존수단이 구걸과 ‘도둑질’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도둑질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³⁷⁾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회학적인 이유로는, 훔치는 행위 그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습벽화 되어 가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철이 들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도 훔치는 행위는 사회가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사회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였다면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계기를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모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즉 조○○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많은 아이들이 훔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며, 비록 사회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훔치는 행위에 뒤따르는 위험은 소년원을 드나들면서 배운 ‘기술’에 의해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방’을 통해, 훔치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방만으로 그의 지속된 도벽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기회를 통해 나타내 보인 그의 지적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나이가 얼마되지 않아 이미 단지 규범에 의한 제약을 넘어서는 절도행위의 부정적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反對動機를 가졌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³⁸⁾ 그러한 반대동기에도 불구하고

36) 그의 나이를 57세로 보는 자료도 있고 63세로 보는 자료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의 나이를 주민등록에 기재된 생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37) 그의 告白에 의하면, 그가 처음 손을 댄 남의 물건은 숟가락이었다고 한다. 이는 그의 절도행위가 먹고 살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에피소드이다.

38)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혼자서 도둑질을 했지 그의 동료들이 자기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마저 도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뒤 첫 도둑질에서 생긴 돈으로 리어커 십 여대를 사서는 서울역 앞 부랑자들에게 나눠주며 노점상이라도 해보라고 권했다.’(그의 친구인 남모씨의 증언)

그가 절도행위를 지속했다면 거기에는 또 그만한 계기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를 범위반(훔치기)에 호의적인 집단과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차별적 접촉에서 찾고자 한다. 즉 그의 계속된 절도행위는 그가 훔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定義하는 집단보다는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집단의 가치관을 받아 들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별적 접촉으로도 조○○의 계속된 절도행각을 설명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절도행위가 일층 대담해지고 기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가 사회적으로 치른 희생³⁹⁾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단지 자신이 준거한 집단과의 차별적인 접촉으로부터 소극적인 행동의 기준을 제공받는 것만으로 그같은 절도행위를 계속 이어갔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소극적인 행동의 기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러한 동기를 그가 절도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준거집단이나 사회의 일부 불만계층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데서, 즉 '義賊'으로 대접받았다는 데서 찾고자 한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준거집단으로부터 Akers의 학습이론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차별적 강화를 받은 셈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떻게 사회학적 요인⁴⁰⁾이 개인의 심리적 계기에 작용하여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로 이어지는가를 밝힘으로써, 범죄행위의 원인과 과정을 동시에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義賊으로 대접받는데서 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찾았을 것이라는 해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상당한 부분 학습이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뉘앙스를 풍긴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미 그가 자신의 절도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기준을 학습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스스로 세워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학습이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즉 참조그룹 이론(reference group theory)에 의하면 행위의 준거기준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자신이 접촉하는 집단에서만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가상적인 집단이나 인물로부터도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 우리는 조○○이 어떠한 인물들에 준거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계속 학습이론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준거한 사람들을 적극적인 관점과 소극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적극적으로 조○○은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과 같은 인물에다 자신의 행동을 준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감옥에서 탐독하던 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었다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7월 ○일 서울지

39) 그는 절도행각의 대가로 자신의 인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40) 말하자면,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의 일부 계층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현실.

법에서 열렸던 그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결심에서 그는 이른바 '브라질 프로젝트'⁴¹⁾라는 것을 공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장발장과 같은 인물이 되고자 노력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발장의 삶과 그가 그의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삶 사이에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장발장은 반드시 흠친 물건으로 성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神父의 도움으로 감화를 받은 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는데 반하여 그의 계획은 절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발장과 자신과의 비교에서 오는 이러한 심리적 괴리감을 조○○은 자신이 소극적으로 준거한 사람들과부터 메울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조○○은 재벌과 권문세가의 집을 털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보고,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혹 어떤 고관의 집에서는 정말 가지고 나올만한 물건이 없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확인하고는 존경심을 가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조○○이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로부터도 비록 소극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최근 장소를 옮겨 일본이라는 환경 속에서 재발된 그의 도벽은 學習理論으로도 이를 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IV. 학습이론에 의한 설명의 한계와 그 보완

만약 조○○이 1998년 11월에 석방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다시는 절도를 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학습이론만으로도 훌륭히 그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재범을 하고 말았고, 우리는 이를 학습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해한다. 이 장에서는 우선 조○○의 경우를 통해 학습이론이 가지고 있는 限界를 살펴본다

41) 이른바 그의 '브라질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러하다. 우선 1단계로, 어떤 수단(절도)을 써서라도 2백만불을 만들어 브라질의 보석광산에 투자한다.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 전문가 鄭 모씨들과 함께 보석을 가공하여 외화를 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번 돈을 국내에 들여와 불우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 그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엄청난 양의보석을 훔쳐 모았으나, 결국 1983년에 체포됨으로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42) 학습이론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富의 편재와 같은 사회적 현상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학적 요인들이 특정 개인들의 심리에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한다고 보는 점에서 사회학적 관점과 차이가 있다.

음, 몇몇 다른 보충적 이론을 통해 학습이론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그의 경우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고자 한다.

1. 조○○의 경우와 학습이론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이론도 이를 구성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명제는 「범죄는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범위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보다는 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과의 잦은 접촉과 차별적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학습되어지는 태도 즉 참조그룹(reference group)의 태도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학습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본질적인 문제(ontological question)를 해결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행집단으로부터 비행행위가 유래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비행행위가 비행집단을 형성하는지의 문제는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데, 마치 비행집단이 먼저인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 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좀 더 비유적으로 비판하여, ‘한 무리를 이룬 새는 같은 깃털을 이룬다’는 명제보다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가 한 무리를 이룬다’는 명제가 더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⁴³⁾ 어쨌든 학습이론도 학습되어지는 집단의 태도 즉 비행적 태도를 전제함으로써 학습 이전에 더 원초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를 조○○의 경우에 적용하여 말한다면, 그의 도벽은 단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학습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보상과 처벌에 의한 특정비행행위의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동일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他학습의 영향을 무시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은 ‘장발장’뿐만 아니라 日帝에 항거하다 순국한 송학선 義士를 매우 숭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처럼 빈곤한 처지에서 자라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송 義士는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서 몇장수를 하며 살아가는 보잘것 없는 청년에 불과했으나,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처단했다는 소식에 자신도 조선총독을 해치우겠다고 발심하게 된다. 늘 칼을 품고 기회를 기다리던 송 의사는 어느 날 조선총독이 타고 지나가는 것으로 짐작되는 세단을 공격하여 뒷좌석의 두 사람을 죽이

43) 이에 대해서, 前掲 Akers의 범죄학 이론, 민수홍 등 역, pp.93~95 참조.

게 되나 이들 가운데에는 충독이 없었으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장에서 의연하게 죽게 된다. 조○○은 이같은 내용의 송 의사에 관한 글을 읽고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송 의사와 같은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리라고 결심하면서,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의 사진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편, 조○○은 감옥에 있을 때부터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자신이 거듭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이제 ‘대도’나 ‘의적’이니 하는 호칭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 석방된 후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책을 써 보라는 주변의 권유에 대해서도 “어디 될 법이나 한 얘기냐. 도둑질을 빼 놓고 내가 될 한 게 있다고. 예전에 주먹잡이가 책을 써 아이들이 건달을 흉내내게 만든 것처럼 내가 내 얘기를 쓰면 애들을 도둑으로 만들뿐이다. 도둑은 그저 도둑일 뿐이다”⁴⁴⁾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조○○에 관한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받은 학습 중 절도에 비호의적인 학습의 강도가 결코 이를 호의적으로 보는 학습에 비해 약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습이론만으로 그의 절도습벽을 설명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조○○의 경우를 학습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비록 그가 다시 절도를 하고 말았지만 결코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행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일관되게 절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에게 ‘절도는 病’이라고 고백하여 거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2. 학습이론의 補完

지금까지 우리가 고찰한 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의 절도적 습벽은 그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습이론적 관점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론에 의한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무엇보다 조○○이 스스로 절도를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또 충분히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반대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범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절에서는 몇 가지 보완적 관점을 통해 그의 경우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44) 일요신문, 1998/05/05일자.

1) 인지론적 관점(cognitive criminological theory)

인지론적 관점은 오늘날 범죄학에서 비교적 새로운 경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였던 Jean Piaget(1896~1980)에 의해 제안된 도덕적 인지능력의 보편적인 발달과정에 관한 이론⁴⁵⁾을 미국의 Lawrence Kohlberg⁴⁶⁾가 범죄행위의 설명에 원용하여 정리한 것을 들 수 있다.

Piaget나 Kohlberg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인지능력의 발달은 단순히 한 사회나 문화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도덕원칙의 습득 또는 내재화를 뛰어 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의 입장은 행동주의적 관점이나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과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Kohlberg는 일탈행위 또는 사회화의 실패를 단지 도덕적 능력의 미성숙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법에 순종하거나, 모든 사람이 지키므로 나도 지키는 정도는 그렇게 높은 단계의 도덕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⁴⁷⁾ 말하자면 이는 범법행위가 도덕적 품성의 발달정도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다처제는 이를 금하는 법체제하에서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더 높은 도덕적 품성 또는 인지능력이라는 기준,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관점이다.⁴⁸⁾

이러한 인지론적 관점에 의하면 범죄는 두 가지 원인을 가지는 셈이 된다. 우선 평균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주어진 사회의 규범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로서, 우리는 이를 인지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주어진 사회의 평균인들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로서 우리는 이를 인지의 괴리가 있는 경우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인지론적 관점을 더 이상 자세히 소개할 여유를 가지고

45) 이 이론에 관해서는 J. Piaget, *Le jugement moral des enfants*, PUF, 8ème éd. 1995.

46) Kohlberg의 대표적 저서로는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I(1981) vol. II(1983) in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47) Kohlberg는 인간의 도덕적 인지능력의 발달과정을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 권위에 순종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8) Fr. Digneffe, *«Morale de justice ou morale de responsabilité : un débat entre L. Kohlberg et C. Gilligan à propos du développement du jugement moral»*, *Déviance et Société*, 1986, vol. 10, No. 1, p.24.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조〇〇의 경우를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따름이다.

우리는 조〇〇의 절도적 습벽이 형사처벌이라는 공식적·규범적 제약은 물론 가정이나 교회, 후원자와 같은 비공식적 통제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평균인들보다 열등한 도덕적 인지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나타내 보인 그의 언행과 생각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그는 절도행위가 가지는 사회적·규범적·윤리적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의 범행은 이른바 인지의 결함이 아니라 인지의 괴리로부터 비롯된 것⁴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수시로 나타내 보인 절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러한 인지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이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지론적 관점도 조〇〇의 경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사회적 疏外이론(social alienation theory)⁵⁰⁾

학습이론적 관점과 인지론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우리는 C. R. Jeffrey의 사회적 소외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본래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이 범죄의 설명에 있어서 개인의 고유한 생물학적·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극복하여 이를 사회학적인 설명과 조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이다. 여기서 Jeffrey는 사회적 소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를 사회화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소외는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두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체성을 결여한 것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소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Jeffrey는 이를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학적 요소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이 이론이 조〇〇의 경우를 이해함에 있어 많은 부분 학습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잘 보완해주고 있다고 본다. 즉 조〇〇은 스스로 절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인식과 태도는 그 정체성이 그렇게 확고한 것이 아니다. 오랜 학습

49) 예컨대, 부유층의 재산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라는 인식.

50) C.R. Jeffrey, 《An integrated theory of crime and crimin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1959, No. 6, pp.533~552.

과정과 감옥생활로 인하여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다. 비록 그가 겉으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생활은 매우 취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정체성은 아주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쉽게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도 소외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론을 보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神父이며 범죄학자였던 Noël Mailloux의 총체적인 심리적 원인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3) 총체적인 심리적 원인이론(théorie psychogénétique intégrale)⁵¹⁾

Mailloux 신부는 우선 상습범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상습범죄는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이러하다.

모든 인간은 프로이드 式의 性的 본능 외에 자기보존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보존본능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正體性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발현된다. 이 정체성은 자신을 타인들로부터 구별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개인의 인격, 즉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시기가 있다. 바로 자아관념이 형성되는 3~4세경과 이렇게 형성된 자아가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발현되기 시작하는 사춘기가 그것이다. 위의 두 시기에는 보통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며, 대개 보다 원만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같은 정체성 확립의 실패는 상습범죄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Mailloux 신부는 정체성 확립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한 중요한 원인으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아동을 확대하는 정서불안의 부모를 들고 있다.

우리는 조○○의 경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ailloux로부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빌리고자 한다. 즉, 조○○은 그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환경속에서 흠치는 행위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적·신체적·

51) Noël Mailloux, *Jeunes sans dialogue : criminologie pédagogique*, Fleurs, Paris, 1971.

정신적인 면에서 또래들보다 흠치기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을 것이며, 이 분야에서 그의 탁월한 재능은 동료들의 찬사를 받았을 것이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는 빈부의 격차라는 현실앞에서 인간적인 분노를 경험했으리라 짐작하며, 이는 점점 더 자신의 절도행위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흠치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들의富有 결국 타인으로부터 훔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직접 신체적으로 해치지 않았듯이 나도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재물을 나와 나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나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용기가 없어서이다. 나는 용기도 있고 재능도 있다.' 우리는 조○○의 이러한 생존환경과 생각으로 미루어 그의 정체성이 '흠치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이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치른 희생과 고통은 그로부터 받은 보상에 못지 않게 컸다.⁵²⁾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가지게 된 신앙은 그의 삶의 의미, 흠치는 행위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과연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과연 착취 때문일까. 또 가진 이들의富有는 과연 흠치는 것으로부터만 형성된 것일까. 결국 흠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문과 그의 신앙은 그를 반대감정이 양립하는(ambivalent) 상태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그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절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 보인 것이지 현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총체적인 심리는 현재 義賊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盜癖과 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공존하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V. 대응책의 제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조○○의 경우에 대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52) 그는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그 중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1평도 채 안 되는 방에서 햇빛도 차단 당한 채 지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해, 상습범에 대한 대책은 재범방지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어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밝혀진 과학적 원인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지 대중의 집단감정에 의존하거나⁵³⁾ 특정 집단의 이해에⁵⁴⁾ 좌우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대응은 그 범죄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의 것이어야지, 단지 이를 억제하거나 대중의 집단감정을 만족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학자들은, “범죄는 진정한 대화의 場을 열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지, 단지 그에 상응하는 어설픈 형벌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그러면 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성격의 것이며, 이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의 경우를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미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스스로 ‘어떠한 형벌도 이제 자신을 가뒀을 수 없다’고告白하고 있다. 그의 경우 이제 형벌은 단지 전통적인 응보관념에 입각한 형사적 正義의 실현이라는 상징적 의미 밖에 없다.

그의 절도적 습벽을 질병으로 보았을 때, 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상습범죄는 마약이나 알콜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질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습절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선, 절도의 습벽이 특별히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⁵⁶⁾이 아닌 한 약물에 의한 치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或者는 행동심리학의 관점에서, 고치려고 하는 습관을 이와 유사하지만 바람직한 다른 습관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⁵⁷⁾

53) 예컨대, 의적으로 추켜세워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파렴치한 절도로 몰아 가혹한 처벌을 구하는 따위.

54) 조○○은 1983년 특가법상의 절도와 특수도주죄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제1심에서 징역 10년 보호감호 15년을 선고받았고, 제2심에서는 異例적으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결정한 진짜 죄는 절도가 아닌, 부유층의 공간을 들여다 본 ‘패션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그 당시 절도의 피해를 당한 권문세가들이 그들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장기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로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55) 「Let the crime become a starting point for real dialogue, and not for an equally clumsy answer in the form of a spoonful of pain.」 (John Braithwaite and Philip Pettit, Not Just Deserts.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Introduction, p.1.)

56) 예컨대 PMS나 갑상선항진과 같은 경우.

57) E. R. Guthrie, The psychology of learning, Harper & Row, 1952.

예컨대, 민간경비회사에서 조○○에게 SECOM장치 테스트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될 것이다.⁵⁸⁾ 그러나 조○○의 절도행위를 단순히 盜癖의 산물로 보아 다른 습관으로 이를 대치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가볍게 볼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절도는 病’ 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속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 흠치는 행위와 이를 중심으로 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끝없는 유희와 충동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행히도 조○○은 이제 흠치는 행위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⁵⁹⁾ 다만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불안정할 뿐이다. 말하자면, ‘의적’이라는 심리적 도피처 또는 구실이 하나의 캡슐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는 ‘도둑질을 수백번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고 했다. 이는 아직도 그가 많은 부분 ‘의적’ 또는 ‘내몫 찾기’ 라는 심리적 캡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도둑은 도둑일 뿐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지, 현재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이 캡슐의 유희에서 벗어나게 하는 解毒작업(detoxification)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현실이란, 그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생존조건과 이로부터 형성된 ‘의적’이라는 허위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그런 조건지위인 심리적 상태는 그의 새로운 삶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강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기존의 질서에 의해 지금까지 조건지위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회화는 결코 기존질서에의 순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한 조건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이러한 해독작업은 근본적으로는 그 자신이 하는 작업이지만 주위의 인간적(personal)인 도움이 필요하다. 다행히 그는 혼인하여 이제까지 그가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이 있다. 그의 가족은 궁극적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족이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가 필요하다. 그를 영웅시하거나 유명인사로 대접하며 들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늘 그의 가

58) 실제로 조○○은 이번 일본에서의 절도를 일본의 SECOM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9) ‘도둑은 그저 도둑일 뿐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죽과 더불어 그를 지지하고 그의 얘기를 들으며 그가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주가 필요하다. 그런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책임감 그리고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그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될 것이다. 아마 그가 얘기하는 청송보호감호소 시절의 박아무개 교도관 같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청송에서는 박아무개 교도관이 저를 전도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알량한 지식나부랭이를 들이대며 그 분을 조롱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혁수갑에 묶여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분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식구통 속으로 손을 넣어 제 손을 잡은 채로 울며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만으로 그의 경우를 접근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엄격한 임상학적 지식과 태도를 갖춘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조○○이 ‘내’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의 ‘나’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나’가 그를 현재에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이 전문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장의 고찰은 여기서 맺는다.

VI. 맺는 말

本稿는 결코 조○○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연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경우를 통해 상습절도범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제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本稿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적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조○○과의 임상적 접촉을 통해 집적적으로 얻은 자료가 아닌 간접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서술에 있어서 다소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점은 추후에 이어질 연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심리학적 연구에 앞서 조○○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구체적 事例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범죄학적 연구는 범죄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심리

학적 연구는 생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서만 더욱 의미를 가진다.

상습범에 대한 연구가 단지 생물학적·심리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질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상습성은 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거나 강화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에 대해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서 사회학적 관점의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염장호 外 3人, 범죄학 I, 도서출판 열린.

이규화, La personnalisation de la sanction pénale, 박사학위논문.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 외국문헌

Akers(Ronald L.), 범죄학이론(민수홍 등 譯),芝山 2000.

Akers(Ronald L.), Deviant Behavior : A Social Learning App.roach., 1985, 3rd ed.
Belmont.

Braithwaite(John) and Pettit(Philip), Not Just Deserts.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Clark(Robert E.), Reference group theory and delinquency, New York, 1972.

Cusson(Maurice) , Délinquants pourquoi, éd. Colin, 1981.

Digneffe(François), 《Morale de justice ou morale de responsabilité : un débat entre
L. Kohlberg et C. Gilligan à propos du développement du jugement moral》,
Déviance et Société, 1986, vol. 10, No. 1.

GASSIN(Raymond), Criminologie, Dalloz 제4판, 1998.

Glaser(Daniel), “Criminality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

(De) Greeff(Etienne), 《Le niveau intellectuel et la criminalité》 in Journal de
neurologie et de psychiatrie, 1933, No.1 pp.114~123.

(De) Greeff(Etienne), 《Criminogénèse》 in Actes du IIème Congrès International
de Criminologie(Paris-Sorbonne 1950), PUF.

Guthrie(E. R.), The psychology of learning, Harper & Row, 1952.

- Hirschi(Travis),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1969.
- Hirschi(Travis) and Hindelang(Michael),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 A Revisionist Review》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7.
- Jeffrey(C. R.), 《An integrated theory of crime and crimin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1959, No. 6.
- Kohlberg,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I(1981) vol. II(1983) in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Mailloux(Noël), Jeunes sans dialogue : criminologie pédagogique, Fleurs, Paris, 1971.
- Moffitt(Terrie) and others, 《Socioeconomic status, IQ and Delinquency》 i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1981.
- Pende(N.), 《La biotypologie et la clinique de la personne humaine au service de la criminologie》. Actes du IIème Congrès Internationale de Criminologie, Paris 1950, t.II,
- Piaget(Jean), Le jugement moral des enfants, PUF, 8ème éd. 1995.
- 44) 일요신문, 1998/05/05일자.
- Pinatel(Jean), La criminologie, 1975, Dalloz.
- Rotman(Edgardo), 《L'évolution de la pensée juridique sur le but de la sanction pénale》 in Mélanges Ancel III, 1975.

ABSTRACT

A Psychologico-criminological Approach on the Hardened Stealing Habit - The case of Mr. Cho ○○ -

by Lee, Kyu Hwa

Mr. Cho ○○, a famous ex-delinquent who has already spent 27 years in prison for his hardened stealing habit and escape, was recently again arrested by Japanese police for hoursbreaking in Japan. Every Korean people would have believed that he had abandoned his habit for good, because, since his liberation in 1998 , he showed himself as a man perfectly cured. He became a believer more than ever, married a well-to-do beautiful woman, got a son from her, had a good income from his job as homme security counsellor and from several other occupations, and after all worked a lot for homeless and unfortunate.

Now, his case is given as an important subject to approach for criminologists. As well as we are concerned, we thought, to explain his case criminologically, it's primarily necessary to skim through the main criminological theories, and that in behalf of this case. After that, we will be able to decide which theory is mostly appropriate to explain his inveterate disease. The one we chose is the social learning theory. But this theory alone won't allow us to understand all aspects of his crime.

This is why we will have to turn to several other theories to complete our explanation.

But theoretical understanding alone of a criminal case is useless if it cannot suggest a remedy for it. And, we finish our study by making some suggestions on this case.